

일본의 공사(公私)개념과 여성의 위치

—1980년대 “아그네스 논쟁”을 중심으로—

최 용 우*

(e-mail : ywchoi4740@naver.com)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3. 일본 여성의 사회적 논쟁 |
| 2. 일본의 공사(公私)개념 | 3.1. 일본의 “주부논쟁” |
| 2.1. ‘오야케(公)’와 ‘와타쿠시(私)’ | 3.2. “아그네스 논쟁”의 발생 |
| 2.2. 일본의 사회구조 | 3.3. “아그네스 논쟁”에서의 ‘私’ |
| | 4. 나가기 |

키워드 : 公(Public), 私(Private), 社会構造(Social structure), 主婦論争(Housewife debate), アグネス論争(Agnes debate)

1. 들어가기

여성주의 이론화 작업에 ‘공사개념’이 도입된 것은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서였다. 인류학자들은 1970년대부터 성별위계를 형성하는 남녀 간의 차이를 밝히는 데 힘썼고, 1980년대에는 여성들 간의 차이와 다름에 주목하면서 공사영역 구분의 모호성을 강조했다. 1974년 미셸 로잘도(Michelle Rosaldo)는 『Women, Culture and Society』에서 공사영역의 분리와 대립의 모델을 통해 여성의 종속적이며 불평등한 지위를 논했는데, 이 논문은 1970년대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논하는 여성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성별관계의 문제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특정사회의 관계망 속에서 살펴볼 것을 주장하면서 남녀의 지위와 공사영역의 분리 및 대립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했다. 이 같은 연구는 서구의 여성학 연구에서 상당히 주목받았던 한편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이 중에는 로잘도가 여러 사회의

*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일본지역 전공

다양한 케이스를 지나치게 일반화시켰고, 공사영역을 구성하는 기준이나 영향력이 사회마다 상이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여성인류학의 연구가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며 중산층 백인여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지적을 받았다.¹⁾

일반적으로 여성은 가정, 남성은 일이라는 성별역할분업에 따라 남녀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따른 위계질서의 성립은 근대의 산물로 일컬어지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사회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다. 하지만 공과 사를 가리키는 개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동일한 사회 내에서도 공사구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구의 공사모델을 아시아에 그대로 대입시킬 수 없을뿐더러, 아시아 내 동일한 유교권 문화에서도 이들이 내포한 수많은 변수와 상황에 따라 공사구분의 기준은 불규칙성을 보인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공사(公私) 개념 역시, 한국 및 중국과 동일한 한자를 사용할지라도, 실제 그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일본 고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차이 및 특성은 특정 사회의 구조적인 형태, 즉 사회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또는 집단과 집단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²⁾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공적/사적영역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와 함께 일본의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일본 여성의 사회적 위치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일본 여성들은 공사영역 양쪽에서 이중부담의 압박을 받았고 이는 주부라는 역할의 가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인지하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부논쟁”이 발생했는데 이 논쟁은 1950년대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특히 제4차 주부논쟁인 “아그네스 논쟁”(1987년)으로 인해 일본 여성의 이중부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산되면서 여성과 공사영역의 경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화되었다. “아그네스 논쟁”이란, 홍콩 출신의 가수인 아그네스가 자신의 아이를 공연장에 데려온 것을 어떤 연예인이 비판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점차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아그네스 논쟁”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했던 제1-3차 주부논쟁은 사회로 진출하는 기혼여성이 급증하는 사회적 배경 하에서, 가정 내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전업주부의 입장과 여성의 사회진출을 권장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쟁이 전

1) 김은실(1996) 「공사영역에 대한 여성인류학의 문제제기 : 비교문화적 논쟁」 『여성학논집』 제13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p.379, p.381, p.387, p.398.

2) 나카네 지에, 양현혜 옮김(2005) 『일본 사회의 인간관계』, 한림신서, p.17.

개되었다. 즉 제1-3차 주부논쟁은, ‘여성이라면 결혼 후 사적영역(가정)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규범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진 장이었다. 여기서 “아그네스 논쟁”과 기존의 제1-3차 주부논쟁의 차이는, 더 이상 주부가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따지지 않고, 맞벌이 여성이 기본전제가 되어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논쟁을 통해 ‘공적영역’인 직장과 ‘사적영역’인 개인 및 가정의 영역을 오가는 일본여성의 문제를 일본의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주부논쟁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주부논쟁을 여성 해방운동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밖에 주부논쟁을 사회적인 이슈로 간주하여 단독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의 『주부논쟁을 읽는다 I, II(主婦論争を読む I, II)』와 묘키 시노부(妙木忍)의 『여성 간의 다툼은 왜 일어나는가?(女性同士の争いはなぜ起こるのか)』가 있다. 전자의 경우 1950-70년대의 제1차-제3차 주부논쟁 분석을 통해 여성문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성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제1차-제3차 주부논쟁에 더하여 1980년대 이후에 발생한 여성 간의 대립 및 갈등 양상을 제4차-제6차 주부논쟁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이때 모든 주부논쟁에서 다루어지는 쟁점들을 큰 틀에서 보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를 오가는 여성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는 여성 갈등의 원인을 ‘공적영역=일’, ‘사적영역=가정’에서의 성역할분업과 공사영역의 위계질서 등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본래 ‘公’은 ‘신성하고 성스러운 공간’을 의미했던 반면 일본어 ‘私’는 중층적이며 ‘공과 대치하는 사/집단 내의 개인/주체로서의 와타쿠시’의 의미를 전부 내포한다. 특히 공사의 위계질서가 확실했던 일본에 있어서, ‘私’가 지닌 복잡하고 상호 모순된 개념들은 ‘공’이라는 영역에 종속되어 주체로서의 ‘와타쿠시’마저 상실될 상황에 놓여왔다.

본고에서는 일본 특유의 공사영역의 구분 및 개념을 이해하고 “아그네스 논쟁”을 통해 일본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먼저 일본 고유의 공사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있어서 연결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1980년대 일본 여성들 간의 논쟁을 대표하는 “주부논쟁”이라 할 수 있는 “아그네스 논쟁”을 통해 일본여성과 일본의 ‘공과 사’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일본의 공사(公私)개념

2.1. ‘오야케(公)’와 ‘와타쿠시(私)’

일본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어떻게 구분될까? 우선 ‘공’과 ‘사’의 의미는 ‘Public’과 ‘Private’라는 영어로 단순하게 직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중국 한자인 ‘公’과 ‘私’의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는 중국에서 유입되어 일본에서 유통된 공사(公私)라는 한자의 의미와 중국의 그것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公/私’를 발음할 때 ‘고우/시’라는 중국식 음독을 쓰는 경우와 ‘오야케/와타쿠시’라는 일본식 훈독을 쓰는 경우가 있다. 우선 일본에 ‘공’이라는 한자어가 유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인이 새로이 ‘오야케’라는 훈독을 덧붙였다는 사실을 통해 일찍이 일본에도 ‘오야케’라는 개념이 존재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³⁾ ‘오야케’의 어원은 ‘위대한 신이 머무는 거처(屋)가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 여기서 거처란 신들이 머무는 성스러운 공간이며 이후 공동체의 수장을 비롯한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이렇듯 초창기의 오야케는 집단의 족장이나 그 밑의 사람들이 형성한 ‘공동성’처럼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던 반면, 고대 천황제 이후로는 천황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된다.

야스나가 도시노부(安永寿延)도 일본의 공사개념이 서구와 중국에서 사용되는 공과 사의 성격을 각각 부분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의 ‘私’가 내포한 다양한 의미를 언급했다. 일본의 ‘私’는 집단이나 조직 내 단위로서의 ‘개인’, 공적영역과 대치되는 ‘사’, 사회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와타쿠시’를 전부 의미하는데, 본래 이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할뿐더러 ‘상호주체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들이 서로 등치되거나 완전히 유착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⁴⁾ 이는 미조구치 유조가 정의한 ‘私’의 세 가지 형태와도 일치한다. 미조구치가 언급한 ‘私’의 첫 번째 의미는, ‘오야케=공’의 정치적인 측면에 관여하려는 ‘사’로써 이는 야스나가의 ‘공적영역과 대치되는 사’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오야케=공’의 사회적 공동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인 ‘사’는 야스나가의 ‘집단 내의 개인’을 의미한다. 끝으로 내밀한 영역에서의 일상적인 ‘사’는, 야스나가의 ‘사회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와타쿠시’를 가리킨다.⁵⁾

3) 미조구치 유조, 고희탁 옮김(2013) 『한 단어 사전, 공사』, 한림대학교, pp.12-16.

4) 安永寿延(1976) 『日本における「公」と「私」』、日本經濟新聞社、p.29.

5) 전개서, 미조구치 유조(2013) p.119.

특히 ‘공적 영역과 대치하는 사’와 ‘개인으로서의 사’에는 ‘행위 주체로서의 사’를 규정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애당초 일본에서는 자기와 타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뒤늦게 공사개념이 유입되면서 ‘사=와타쿠시’라는 일본 특유의 주체개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⁶⁾ 미조구치 유조가 미즈바야시 다케시(水林彪)의 말을 빌려 말하기를, 일본의 ‘사’는 관료제적인 국가질서=공적 질서에서 분리 혹은 이와 대립하는 ‘사’가 아니라, 지방 수장층의 오야케적 질서 관념을 전 국가적으로 확대시킨 ‘공’에 포섭되어있는 ‘사’라고 했다. 즉 일본의 사는 공의 하위자로서 공에 대한 종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의 개념의 연장선상에 일인칭을 가리키는 ‘와타쿠시’라는 영역이 형성되었다. 본래 인칭어에는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와타쿠시=사’ 역시 자립적인 ‘자기의 세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일인칭은 ‘私’가 내포한 다양한 개념들로 인해 주체로서의 ‘와타쿠시=사’ 역시 ‘공’에 대한 종속적이며 은밀한 성향을 지니게 된 것이다.⁷⁾

한편 야스나가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일신독립하여 일가독립, 일가독립하여 일국독립, 일국독립하여 천하독립한다(一身独立して一家独立し、一家独立して一國独立し、一國独立して天下も独立すべし)’라는 말에 내포된 일본만의 특색을 지적했다. 본래 ‘독립=자유’야말로 시민사회적인 의식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독립한 개인과 개인 혹은 같은 자격을 지닌 시민과 시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횡적인 관계로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와타쿠시’ 영역에서는 뭇하든 자유지만 ‘오야케’ 영역에서는 ‘오야케’가 하는 일에 간여해서는 안 되고 공동의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사’의 개념은 철저히 개인이라는 테두리에 갇혀있었다. 근대 일본의 공사 관계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일체화, 즉 사가 공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공공의 영역은 자율적인 개인들의 상호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개인은 각자의 ‘와타쿠시’ 영역을 주장할 수 없었으며 이미 존재하는 ‘오야케’의 테두리에 종속되는 것을 암묵적인 전제로 여겼다.⁸⁾

패전 이후로 일본의 공사 논리에도 변화가 있었다. 천황은 더 이상 ‘공’을 의미하는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종래의 신민은 국민으로 탈바꿈했다. 국가의 공적인 성격도 약화되면서 표면적으로나마 ‘공공의 복지’의 실현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또한 전전에는 ‘부국강병’이었던 국가 목표에서 패전 후에는 ‘강병’이 누락되면서 기업

6) 전개서, 安永寿延(1976) pp.30-31.

7) 전개서, 미조구치 유조(2013) p.45.

8) 전개서, 미조구치 유조(2013) pp.50-51.

이 실질적인 책임자로 부상했다. 공의 중심이 기업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는 일본 고유의 공사 관계가 그대로 재현되었다. 기업에 소속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공사 관계는 ‘공=기업’과 여기 속한 ‘사=개인’으로 간주됨으로써 그 기본구조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⁹⁾

2.2. 일본의 사회구조

일본에서 ‘공’은 수장성 및 공동성의 성향이 강했고 ‘사’는 공에 수렴되어 그 영역 내에서 철저히 규범 준수를 강요받았다. 공사개념은 일본 사회의 기본단위인 ‘이(家)’와 그 이(家)의 집합체인 지역사회에서 생성된 윤리 중 하나로 조직윤리의 근간을 이룬다. 여기서 윤리란, 사회 내의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내면화된 규칙(rule)이며 그 내용은 지역이나 역사에 따라 상이하다.¹⁰⁾ 따라서 일본 특유의 공사개념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일본의 사회구조 및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로 직결되고, 이는 일본에서 비롯된 다양한 이슈와 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구조 연구를 통해서 무엇이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뒷받침하고 여성의 삶을 규정해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여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¹¹⁾

나카네 지에(中根千枝)는 사회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사회구조를 분석했다. 여기서 사회구조란, 예를 들어, 집단으로서의 촌락과 도시에 있는 회사를 비교할 때 이들은 각각 조직이나 양식은 다르지만 사회집단으로서의 ‘구조’는 동일하다¹²⁾고 보는 것이다. 나카네는 사회집단을 구성하는 요인을 크게 자격과 장(場)으로 구분했다. 자격(속성)에 따른 집단의 구성원들은 친자관계, 출신, 학력, 직업, 지위, 남녀노소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위상에 의해 구분되는 반면, 장으로 구성된 집단에서는 구성원들의 자격이 크게 거론되지 않는다. 장으로 구성된 집단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소속기관처럼 일정한 테두리 속의 개인들이 집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회사 및 대학이라는 테두리 자체가 집단구성이나 집단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지

9) 전개서, 安永寿延(1976) p.76.

10) 임경택(2018) 「근대일본의 조직·사회윤리의 형성과 정착과정」 『민족문화논총』 7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290.

11) 함동주(1998) 「일본사회에 있어서 공사영역의 역사적 전개와 여성」 『여성학논집』 제 14, 15합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p.233.

12) 전개서, 나카네 지에(2005) p.17.

역에서건 고유의 지배적인 사회 구조는 존재하기 마련이다.¹³⁾

일본의 경우, 주로 장에 의해 집단이 구성된다. 이렇듯 ‘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에서는 구성원들에게 ‘우리들’이라는 그룹 의식을 강조한다. 서로 다른 자격의 구성원들에게 같은 집단이라는 인식과 확신을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구성원들에게 일체감을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고립감을 초래하며, ‘집단 내 인간’과 ‘집단 외 인간’이라는 차별의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은 공통적으로 ‘종적’인 구조이고 종적인 상승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해 같은 종류와 실력을 가진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집단 사이에 경쟁이 심화될수록 개개 집단의 결속은 더욱 굳건해지고 결국 각 집단의 고립성, 봉쇄성은 한층 더 강화된다. 여기서 집단 간의 경쟁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병립하는 관계에 있는 집단들 간에 펼쳐진다는 것이 특징적이다.¹⁴⁾ 종적인 구조와 횡적인 구조의 집단은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상이하다. 전자의 경우, 기존의 특정 구성원 한명의 소개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그 집단의 규칙 및 자격을 우선하여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¹⁵⁾ 즉 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종적인 구조를 지닌 일본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집단 내부에서의 인간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카네 지에는 일본의 사회집단에서 조직은 개인에 우선하며 한 집단의 생명은 특정한 주의나 사상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상호의 인간관계 그 자체에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은 다른 집단과의 연대가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소외된다면 철저한 고립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3. 일본 여성의 사회적 논쟁

197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이루어지면서 주부론이 부상했다. 일본에서는 ‘주부’가 근대화/산업화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라이프스타일임을 입

13) 나카네 지에에 따르면, ‘사회구조’의 지속성 내지 집착성의 정도는 그 사회가 오래되었을수록, 또 사회의 인구가 많고 밀도가 높을수록 강하다. 사회 그 자체가 고도로 통합되어 있고, 사회로서 질이 높고 두터워서 한층 더 강인한 힘을 갖는 것이다.

14) 전개서, 나카네 지에(2005) p.73, pp.79-80.

15) 전개서, 나카네 지에(2005) pp.90-91.

증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근대일본에서는 성별역할분업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한 양치현모사상은 학교교육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이는 가정 내 ‘주역’으로서 지위를 확립하려는 여성 자신의 욕구를 흡수하면서 근대적 주부 개념으로 정착했다.¹⁶⁾ 일본에는 일찍이 1950년대부터 주부의 가사노동 및 사회적 역할을 둘러싸고 여성들 간에 논쟁이 있었는데 이를 “주부논쟁”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주부논쟁” 연구자인 우에노 지즈코와 묘키 시노부는 각각 제1차-제3차 주부논쟁(1955년-1972년)과 제4차-제6차 주부논쟁(1987년-2005년)을 정의했다. 여기서 “주부논쟁”의 성격은 주부 및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하는 ‘성역할 규범’과 결혼 및 출산의 선택에 관한 ‘라이프코스 규범’으로 구분된다. 제1차-제3차 주부논쟁에서는 ‘성역할 규범’의 준수를 전제로 삼았던 반면 제4차 주부논쟁에서부터 ‘라이프코스 규범’이 등장했다. 묘키 시노부는 제4차 주부논쟁인 “아그네스 논쟁”¹⁷⁾을 남녀의 사회적 위치 및 일본의 사회구조적 문제와도 직결되는 논쟁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번 장에서는 “주부논쟁”과 일본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라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 및 문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3.1. 일본의 “주부논쟁”

주부논쟁에는 평론가, 경제학자,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제1차, 제2차 주부논쟁은 연달아 발생했는데 그 당시 일본은 사회적으로 격심한 변화양상을 보였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의 남성들은 패자로서 가정에 돌아왔으며 자신감을 상실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던 반면, 전시 내내 총후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던 여성들은 비교적 강한 자신감과 생활력을 지니고 있었다. 전시에 그러했듯 전후 부흥기에도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일본 기업은 남녀구분 없이 인력을 채용했다. 1950년 한국전쟁에 의한 특수경기에 힘입은 일본은 역대 최고의 호황을 경험했고 1956년 <경제백서>에서는 ‘더 이상 일본은 전후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1955년에 발발한 제1차 주부논쟁(1955-1959년)은 이시가키 아야코(石垣綾子)가 잡지 『부인공론』에 게재한 “주부라는 제2의 직업론”이란 글이 발단이였다. 이시가키는 이 글에서 여성의 직장진출을 권장함으로써 주부라는 업종은 제2

16) 기무라 료코, 이은주 옮김(2013) 『주부의 탄생』, 소명출판, pp.24-25.

17) 묘키 시노부는 “아그네스 논쟁”을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첫째는 아그네스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일에 대한 비판, 둘째는 ‘공사분리’라는 관점, 셋째는 아이와 출근하는 행위를 ‘일하는 엄마를 대변’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의 직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둘러싸고 우메사오 다다오(梅棹忠夫)와 사카니시 시호(坂西志保)는 각각 ‘주부는 쓸모가 없다’(妻無用論)던가 ‘주부야말로 금전으로 환산될 수 없이 귀중한 존재다’(‘主婦第二職業論’의盲点)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논쟁의 쟁점은 ‘주부의 직장 진출에 대한 시비 판단’이었으나, 성별 역할분담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고 오히려 주부의 ‘이중부담’을 부추기는 측면이 었보였다.

제2차 주부논쟁(1960-1961년)은 이소노 후지코(磯野富士子)가 「아사히 저널」에 게재한 “부인해방론의 혼미”라는 글이 발단이였다. 이소노는 부인의 가사노동이 남편의 노동력 재생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중시했으며, 직장을 갖는 것이 여성의 해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명 ‘가사노동 논쟁’인 이 논쟁에서, 이소노는 ‘부인의 가사노동이 남편의 노동력 재생산으로 이어진다’면서 주부노동이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주부의 경제적 가치를 가늠하는 의견이 활발히 오갔는데 결국 경제학적인 학술용어로 응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논쟁은 크게 ‘가사노동은 가치를 창출한다’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주부노동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부로서의 역할 자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성별역할분담이라는 근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발상이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제3차 주부논쟁(1972년)은 다케다 교코(武田京子)의 “주부야말로 해방된 인간상”이라는 글이 발단이였다. 다케다 교코는 ‘성별역할 분업을 부정하려고 무리해서 직장에 다닐 필요는 없다’는 전업주부/가정옹호론을 설파했다. 이 논쟁은 고도성장기 이후 주부의 노동화가 완전히 정착하고 ‘전업주부’라는 말이 등장하던 시기에 일어났다. 즉 일종의 ‘전업주부’로서의 정통성을 추구하면서 아이덴티티를 모색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¹⁸⁾

한편 묘키 시노부는 1980년대 이후의 여성논쟁을 제4차-제6차 주부논쟁으로 정의했다. 제5차 주부논쟁(1998-2002)과 제6차 주부논쟁(2003-2005)에는 ‘미혼’ 여성이 등장하고 ‘규범을 강제하는 상황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논쟁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성향이 있다. 제5차 주부논쟁에서는 ‘전업주부를 비판’하는 입장과 ‘전업주부를 옹호’하는 입장의 대립이 쟁점이었다. 이시하라 리사(石原里紗)는 성별역할 분담이

18) 제1차-제3차 “주부논쟁”에 관한 내용은, 上野千鶴子(1982) 『主婦論争を讀むⅠ』의 「解説」(pp.222-241) 참조.

강제에서 선택으로 바뀌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책임감 없이 노동으로부터 도피하듯 전업주부를 택하는 여성들을 비판했다.¹⁹⁾ 그 당시 일본의 경제상황은 굴곡이 상당했는데, 전후 제2의 경기부흥이 오다가 하면 버블경제가 붕괴하여 금융과탄을 겪는 등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자 중신고용 및 연공서열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안감을 느낀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찾아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²⁰⁾ 끝으로 제6차 주부논쟁(2003년-2005년)은 “마케이누²¹⁾ 논쟁”을 말한다. 이로써 처음으로 미혼 여성의 삶이 쟁점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만혼 및 비혼 여성들은 기혼여성을 부러워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무관심했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논쟁을 계기로 주부논쟁의 쟁점은 ‘혼인 여부’ 그 자체로 이동하게 되었다.²²⁾

3.2. “아그네스 논쟁”의 발생

제4차 주부논쟁인 “아그네스 논쟁”은 여성의 갈등 양상이 변하는 전환점에 발생했다. 기존의 주부논쟁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가정 내 성역할 규범의 준수를 전제로 삼았던 반면 “아그네스 논쟁”의 중심에는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이 있었다. 이 논쟁은 남성 미디어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각종 주간지와 월간지, 책에서 언급되는 등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의 ‘이중부담’에 대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²³⁾ 1980년대는 국제적으로 여성주의 연구가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시기로, 이러한 흐름은 일본의 국내 정치 및 사회제도에 반영되는 한편 여성들의 사회적 의식도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그 당시 일본은 다양한 변화와 모순이 공존했다. 총무청 통계국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985년의 전체 고용자 중 여성고용자 비율이 35.9%, 이 중 기혼자 비율은 59.2%로 전체 여성고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²⁴⁾ 그 당시 일본은 여성 관련 공공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외부

19) 전개서, 妙木忍(2009) pp.150-154.

20) 전개서, 妙木忍(2009) pp.137-138.

21) 사카이 준코(酒井順子)의 저서 『負け犬の遠吠え』(한국에서 <네 아직 혼자입니다>로 출판됨)에 사용된 ‘마케이누(負け犬)’(‘싸움에서 진 개’를 의미하며 노처녀를 가리킴)라는 단어를 채용한 것.

22) 전개서, 妙木忍(2009) p.206.

23) 전개서, 妙木忍(2009) p.86.

24) 石橋(2014) 『日本女性政策の変化と「ジェンダー・バックラッシュ」に関する歴史的研究』 博士学位論文、立命館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p.66.

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첫째는 국제적으로 확산된 신보수주의 사상이며, 둘째는 국제적인 여성차별철폐운동을 기반으로 생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선언이었다.²⁵⁾ 그 결과 일본에서는 1980년대 가족정책의 근간이 된 ‘일본형 복지사회’론이 대두했다. 이토 슈헤이(伊藤周平(2007))에 의하면, ‘일본형 복지사회론’에 따라 사회보장비를 억제하는 정책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육아 및 가족케어 등을 며느리나 딸의 역할로 치부하는 가족의존형 정책이었다. 이뿐 아니라 배우자특별공제 도입 및 배우자 법적 상속료 향상, 제3호 피보험자 제도 등 ‘부인의 위치’라든가 ‘내조의 공’을 우대해주는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으며, 집에 머무는 여성들에게 일정의 혜택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다.

한편 『현대일본인의 의식구조(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NHK出版, 2010)의 “일본인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80년대 이후로 ‘성역할분담’ 유형을 지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반면, 부부가 함께 가정을 돌보아야한다는 ‘가정 내 협력’ 유형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증가했다. 성역할에 대한 의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²⁶⁾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영향으로 1985년에 “남녀고용기회균등법²⁷⁾”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전후 일본 최초의 직장 내 여성차별금지 법률이자 여성을 남성과 동일한 ‘노동력’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이 법률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성별분업을 온존시켰다는 비판도 잇따랐다.²⁸⁾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아그네스 논쟁”이 발생했다. 아그네스²⁹⁾는 1972년 홍콩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17세에 가수로 데뷔한 여성으로, 결혼 후 첫째를 출산한 직후 1987년 2월에 장남과 함께 TV방송 녹화장에 등장했는데 이것이 “아그네스 논쟁”의 발단이었다. 아와타니 노리코(淡谷のり子)가 <후지텔레비전, 오하요, 나이스데이>라는 방송에서 아그네스를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직장에

25) 여성권리의 세계기준을 보여주는 국제문서로써, 고정적인 성별역할분업 자체를 성차별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변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전게서, 石橋(2014) p.65).

26) ‘성역할분담’에 동의하는 비율이 73년 39.2%에서 88년 25%로 하락했으며, ‘가정내협력’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은 73년 21.2%에서 88년 34.5%로 상승했다(전게서, 石橋(2014) p.66).

27) 이후로도 1997년, 2006년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각각 모집/채용/퇴직 전반에 이르는 차별 금지와 간접차별 금지 항목이 추가된다(전게서, 石橋(2014) p.69).

28) 전게서, 石橋(2014) p.69.

29) 1955년도 출생으로 본명은 ‘陳美齡’이고 ‘아그네스’는 세례명.

아이를 동반한 아그네스의 행동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묘키 시노부에 따르면 “아그네스 논쟁”은 다음의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1987/03/20~1988/02/18)는 ‘창출기’, 제2기(1988/02/19~1988/05/15)는 아그네스가 국회에 초대된 이후, 제3기(1988/05/16~1988/08/02)는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가 신문 글을 기고한 이후, 제4기(1988/08/03~1988/09/07)는 『「아그네스 논쟁」을 읽다』가 발매된 이후, 마지막으로 제5기(1988/09/08~1988/12/01)는 중화사상설이 불거진 이후다.³⁰⁾ “아그네스 논쟁”의 모든 시기에서 가장 활발히 의견을 개진한 인물로 하야시 마리코(林真理子)³¹⁾와 나카노 미도리(中野翠)³²⁾ 그리고 우에노 지즈코³³⁾가 있다. 이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아그네스 논쟁”의 시기별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인 1987년 5월 나카노 미도리(中野翠)는 『선데이 마이니치(サンデー毎日)』에 아그네스의 행동을 배려 없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글(「電気かけのペーパームーン」)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저자는 ‘애엄마들이 카페에 아이를 데려오면 담배도 피우지 못할뿐더러 그들과 눈이 마주치면 억지웃음을 지어보여야 한다’면서 어른들의 공간을 침범한 눈치 없는 아이엄마에 대한 불쾌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³⁴⁾ 나카노는 아이에 대한 배려나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 준수되어야 할 무언의 약속을 어긴 존재를 비난했으며 애초에 여성 개인의 고충에 대한 이해는 배제되어 있었다. 제2기 1988년 2월 아그네스는 참의원 ‘국민생활에 관한 조사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육아 휴업법’의 실현 및 보육환경의 정비를 호소했다. 그러자 하야시 마리코는 『문예춘추(文芸春秋)』(1988/4/10)에 ‘적당히 해, 아그네스’(「いい加減にしてよアグネス」)라는 글에서, 눈치 없는 아그네스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을 참으며 예의상 호의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며 비판했다.

제3기에는 우에노 지즈코가 『아사히 신문』의 「논단(論壇)」(1988/05/16)에 아그네스를 옹호하는 글(「働く女が失ってきたもの」)을 게재했는데, 이 글을

30) 전개서, 妙木忍(2009) p.87.

31) 하야시 마리코(林真理子, 1954/04/01-)는 일본의 소설가이자 에세이 작가.

32) 나카노 미도리(中野翠, 본명 비공개, 1946/07/21-)는 칼럼니스트이자 에세이 작가.

33)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 1948/07/12-)는 일본의 페미니스트이자 사회학자.

34) www.pat.hi-ho.ne.jp/nobu-nisi/kokugo/agunesu.HTM#top (검색일:2019.12.10.)

계기로 아그네스 개인에 집중되었던 논점이 일변한다. 이후 아그네스 논쟁은 “아이동반출근 논쟁”으로 불리면서 예능인 및 유명인들로 국한됐던 논쟁의 범위로 확장되어 일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에노는, 하야시 마리코가 이전에 아그네스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떨어지는 행동’,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일하는 여성들이 지켜야 할 「정론」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러한 「정론」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한다’고 대응했다. 그리고 ‘아그네스처럼 일하는 엄마의 배후에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는 혼자 알아서 크는 존재가 아니며,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으면 직장에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남성 또한 일하는 여성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4기-제5기에서는 그동안 아그네스를 둘러싼 각종 글을 한데 모아 책으로 출판한 『「아그네스 논쟁」을 읽다』(『「アグネス論争」を読む』)가 2주만에 10만부가 팔리는 등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1988년 12월 1일에는 ‘유행어 대중상’을 수상함으로써 “아그네스 논쟁”은 막을 내리게 된다.³⁵⁾

3.3. “아그네스 논쟁”에서의 ‘私’

우에노 지즈코에 의하면 제1차-제3차 주부논쟁은 세 가지 공통된 유형을 보인다. 첫째 인격적 자립을 하려면 경제적 자립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주부생활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가정은 인간 본래의 생활 장소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주부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한다는 것, 셋째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는 주부의 특권적인 위치를 강조하는 측면이다.³⁶⁾ 특히 우에노는 주부의 자기선택권을 존중했으며 성차별의 큰 원인이 성별역할분담에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성별역할분담에서 여성은 사적영역인 가정을 책임지고 남성은 공적영역인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한다. 우에노는 “아그네스 논쟁”에서도 여성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남녀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많은 여성이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녀의 사회적 위치를 논할 때 일본 특유의 사회적 구조 즉 고유의 공사개념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장에서 언급한 일본 특유의 공사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 여성의 사회적 입지를 살펴볼

35) “주부논쟁”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妙木忍(2009)의 전계서(pp.87-98)의 내용을 참조.

36) 上野千鶴子(1982) 『主婦論争を読むⅡ』、勁草書房、p.248.

필요가 있다.

“아그네스 논쟁”이 발생한 당시 여성에게 전업주부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묘키 시노부에 따르면 아그네스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일터에 온 것은 가정과 직장에서 받는 이중부담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었다. ‘공사분리 규범’과 ‘성역할 규범’을 철저히 지키려던 아그네스는 그로 인해 생긴 이중부담과 모순을 견디다 못해 일본사회 집단의 암묵적 규율을 어긴 셈이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양해지고 사회진출의 기회는 많아졌을지라도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구조는 견고했으며 이는 여성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양해졌다는 사실은 여성에게 기회가 많아졌다는 의미였던 동시에 기존의 성역할에 더하여 이중의 책임을 떠맡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묘키 시노부에 따르면 다른 여성들이 ‘공사분리’의 규범을 내세우며 아그네스를 비판했던 배경에는 1980년대에 시행된 “남녀고용기회균등법”도 영향을 미쳤다. 이 법률에 의해 직장 여성들은 공적영역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켜나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스로 획득한 자신들의 입지가 아그네스로 인해 위태로워졌다고 느낀 것이다. 이 법률은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노동력으로 간주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직장 내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부담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그네스는 공사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분담을 제대로 이해하고 양육과 직장에서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자 최선의 선택을 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 아이를 데려와도 괜찮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당했던 아그네스는 정작 일본의 문화나 공사영역의 구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그녀의 행동은 일본에서 ‘일종의 저항’으로 간주되었고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 당시 출판된 『「아그네스 논쟁」을 읽다』에 등장한 인물을 중심으로 아그네스의 비판/옹호/중도파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표적 비판파인 아와타니, 하야시, 나카노는 ‘공사분리’의 규범에 따라 공적영역을 신성시하며 아그네스의 행동을 이기적이며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았으며, 아그네스가 완전한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의 규범을 깨트리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데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그 당시 미디어를 통해 전업주부/맞벌이주부/일을 그만둔 주부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투고한 글을 보면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아그네스를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 한편 대표적 옹호파로 앞서 언급한

37) 전개서, 妙木忍(2009) p.119.

우에노 이외에도 메이오 마사코(冥王まさ子)와 오치아이 에미코(落合恵美子)의 경우, 각각 ‘예외를 향한 집단적 규제는 지극히 일본적...약자는 집단에 순응해야 하는 현실...’, ‘맞벌이 엄마들은 죽을힘을 다해 산다...특히 젊은 여성들은 아그네스의 상황에 공감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美)와 에하라 유미코(江原由美子)는 중도적 입장에 서서 아그네스의 행동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여성이 일과 육아라는 양립할 수 없는 의무적 역할 사이에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했다.³⁸⁾ 특히 아그네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그녀를 비판한 일반 여성들의 경우, 같은 여성이라는 동질감보다는 아그네스를 다른 장에 속한 경쟁 상대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아그네스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따라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자 최선을 다했고 이에 대한 공감은 얻었으나, 일본인이 중시하는 ‘장’으로 구성된 집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앞서 언급했듯, 일본 집단은 주로 장에 의해 구성되며 구성원들에게 ‘우리들’이라는 그룹의식이 강요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격/속성에 의한 결집력은 비교적 약하다. 특히 직장이라는 공적영역은 남성에 의해 지배된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성의 주부로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애초에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기혼여성을 바라볼 때, 본래 사적영역(가정)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직장이라는 또 하나의 장에 소속되어 있다고 간주하기 십상인데, ‘장’으로 이루어진 일본 집단의 경우 두 개의 장이 중첩되는 상황을 불편하게 여길뿐더러 배제시키려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직장 내 여성은 최대한 사적영역에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한편,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의무를 수행하며 그 안에서 보호와 대우를 받으며 만족해왔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아그네스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맞벌이 여성들은 아그네스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장’의 규율을 무시한 아그네스에게 분개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녀에게 외국인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등 ‘자격’을 운운하게 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그 집단의 ‘우리들’이라는 집단의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일본의 상호중층적이며 대립하는 ‘私’ 개념은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 여성의 입지를 한층 약화시켰다. 특히 ‘직장’이라는 ‘공적영역’에 종속된 ‘私’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아그네스가 아이를 동반하여 직장에 나온 것

38) 전개서, 妙木忍(2009) p.95.

은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일본의 ‘私’는 ‘공’의 하위자로서 ‘공’에 대한 종속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권리를 운운하기에 앞서 아그네스는 일본의 ‘성스러운 영역’에 민폐를 끼치는 상식 없는 행동을 한 셈이다. 또한 성, 엄마, 아내 등 개인의 ‘자격(속성)’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은 ‘장’의 속성에 어긋날뿐더러 은밀하고 부끄러운 영역에 해당하는 ‘私=와타쿠시’를 드러내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렇듯 직장 내의 여성은 ‘私’의 중층적 개념들 사이에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직장’ 내 소수로 하위구조에 머물며 철저히 종속된 존재가 된다. 공과 대치하는 ‘사’와 주체로서의 ‘와타쿠시’까지 공적영역인 ‘직장’에 종속됨으로써 결국 직장 내 여성은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제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지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 집단은 종적구조를 이루며 집단 간 혹은 집단 내 구성원 간의 횡적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병렬관계에 있는 집단들 간에 대립구조가 생기면서 집단 내의 하위구조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집단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집단 내에서 고립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다. 여성의 경우, 뒤늦게 사회로 진출했고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주로 하위구조에 속한다.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집단의 여성들과의 소통이 단절된 여성들은 여차하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고립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집단에 충성하거나 상위구조 진입을 목표로 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이뿐 아니라 아그네스를 둘러싼 비판여론은 당시 일본사회에 만연했던 ‘직장신성론’의 영향도 있었다. ‘직장신성론’이란 ‘직업이 있다면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을 우선시해야하고, 직업은 신성하며 공적인 것이기에 사적인 것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물론 직장이 신성하다는 발언 자체가 남성 중심 사회에 만연한 ‘남성의 논리’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야말로 아그네스는 남성이 지배하는 신성한 공적영역에서 개인의 속성을 드러내는 ‘와타쿠시’와 ‘사’를 내세우며 ‘장’의 집단의식을 흐렸기 때문에 매우 이기적인 존재로 비취졌고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4. 나가기

일련의 통계나 시행되는 정책의 종류만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실생활의 질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여성의 지위는 ‘다른 시점에서 다른 의미를 산출

하는 개념들 전부(생산적인 활동/자원에 대한 통제력/성적자율성/정치적 권력/그 외 다른 요인들)를 포함하고 있으며 결국 그것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혼합적인 개념'이다.³⁹⁾ 대표적인 일본론의 대가 중 한명인 야마모토 시치헤이(山本七平)는 '일본사회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공기'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여기서 '공기'란 '매우 강력하고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진 판단의 기준으로, 저항하는 사람을 이단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정도의 힘을 가진 초능력'에 가까운 어떤 것을 말한다.⁴⁰⁾ 그야말로 '공기'는 일본의 사회구조적 특징과 집단의 성향을 망라한 표현으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없어선 안 될 강압적인 공기 속에서 사고하며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자격'보다 '장(場)'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일본의 사회집단에서 구성원들은 그들 간의 소통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공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만약 어떤 압도적인 공기로 뒤덮인 집단에서 한 개인이 기존의 흐름을 흐트러트리는 행위를 한다면, 설령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다른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숨 쉬어 온 공간을 침범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아그네스가 일본사회에 공기처럼 존재하던 공사영역 구분이라는 개념과 여성의 이중부담에 저항하며 직장 내 개인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보여준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여성의 문제를 일본 특유의 사회구조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당시 아그네스를 향한 비판 중에 그녀가 중국인이고 중화사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장한 일본에 대해 시기, 질투 등의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들은 아그네스가 일본 특유의 '공사영역의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여 '공기'의 흐름을 망쳤다고 간주함으로써 그녀가 외부에서 유입된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외국인이라는 '자격'을 운운하며 아그네스를 집단에서 고립시키려 한 것이다. 또한 "아그네스 논쟁"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그녀를 비판했던 배경에는, 일본어 '私'가 내포하는 모순된 개념들로 인해 여성들이 직장에서 주체인 '와타쿠시'의 입장과 공과 대치하는 '사'라는 존재로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든 사회구조가 존재했다. '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집단은 예로부터 '私'가 '公'에 종속되어 있었고, '私'에는 '개인'이자 공과 대치하는 '사'이자 주체로서의 '와타쿠시'라는 모순된 개념들이 뒤섞

39) 전개서, 김은실(1996) p.397.

40) 야마모토 시치헤이, 박용민 옮김(2018) 『「공기」의 연구』, 헤이복스, p.31.

여 있었다. 아그네스가 직장에 아이를 동반한 행동이 당시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이렇듯 일본 사회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私’의 중층적 개념으로 인해 공적영역에서 주체로서의 ‘와타쿠시’와 공과 대치하는 ‘사’로서의 의식이 배제된 상황에 모두가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전히 일본에서는 “아그네스 논쟁”의 쟁점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17년 일본 구마모토 시의회의 오가타 유카(緒方夕佳) 의원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7개월 된 아들을 안고 정례회에 참석했는데, 의원들의 반발에 아기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한편 같은 해 미국 상원에서는 자녀동반을 허용했고 그밖에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에서도 정치인이 아이와 함께 의회에 참석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⁴¹⁾ 특히 오가타 유카 소동 이후 SNS 등에서 오가는 찬반의견 역시 “아그네스 논쟁”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이동반은 규정위반 및 민폐라는 의회의 입장을 비롯하여 같은 여성으로부터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한편, ‘아이에게 최선이 무엇일지 생각해라’, ‘의회를 어떻게 바꿔야할지 생각해라’ 등 오가타 유카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도 엿보였다. 이렇듯 오늘날 일본이 직면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정치, 경제, 사상적인 측면을 넘어서 사회윤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잘도는 사회의 불평등한 성적 위계질서를 생산하고 재생산하게 하는 사회의 조직적 특징을 밝혀나가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사영역의 구분이 분명한 사회일수록 그리고 여성이 격리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여성들의 지위는 낮다고 간주했다.⁴²⁾ 일본 특유의 공사개념과 공사영역 구분에 의해 형성된 일본의 사회구조 및 규범은 일본여성의 사회활동 및 영향력을 저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공과 사’에 대한 정의나 관점도 변화를 거듭해왔지만 일본인들의 무의식에 남아 공기처럼 존재하는 ‘공과 사’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바뀌었고 그것이 현재 일본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여지가 있겠다.

41) https://www.huffingtonpost.jp/entry/baby-kumamoto-5_jp_5c5d613ee4b0974f75b204b3
(검색일:2020.02.03.)

42) 전개서, 김은실(1996) p.383.

【참고문헌】

- 기무라 료코, 이은주 옮김(2013) 『주부의 탄생』, 소명출판, pp.24-25.
- 김은실(1996) 「공사영역에 대한 여성인류학의 문제제기 : 비교문화적 논쟁」 『여성학논집』 제13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p.379, p.381, p.383, pp.397-398.
- 나카네 지에, 양형혜 옮김(2005) 『일본 사회의 인간관계』, 한림신서, p17, p.73, pp.79-80, pp.90-91.
- 미조구치 유조, 고희탁 옮김(2013) 『한 단어 사전, 공사』, 한림대학교, pp.12-16, p.45, pp.50-51, p.119.
- 야마모토 시치헤이, 박용민 옮김(2018) 『「공기」의 연구』, 헤이복스, p.31.
- 임경택(2018) 「근대일본의 조직·사회윤리의 형성과 정착과정」 『민족문화논총』 7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290. (DOI: <http://dx.doi.org/10.15186/ikc.2018.12.31.287>)
- 함동주(1998) 「일본사회에 있어서 공사영역의 역사적 전개와 여성」 『여성학논집』 제14, 15 합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p.233.
- 石橋(2014) 『日本女性政策の變化と「ジェンダー・バックラッシュ」に関する歴史的研究』 博士学位論文、立命館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pp.65-66、p.69.
- 上野千鶴子(1982) 『主婦論争を読むⅠ』、勁草書房、pp.222-241.
- _____ (1982) 『主婦論争を読むⅡ』、勁草書房、p.248.
- 安永寿延(1976) 『日本における「公」と「私」』、日本經濟新聞社、p.29、pp.30-31、p.76.
- 妙木忍(2009) 『女性同士の争いはなぜ起こるのか_主婦論争の誕生と終焉』、青土社、pp.86-98、p.119、pp.137-138、pp.150-154、p.206.

논문 투고 일자 : 2019. 12. 30.

논문 심사 일자 : 2020. 01. 28.

게재 확정 일자 : 2020. 01. 30.

 <要旨>

 日本の公私概念と女性の位置づけ
 -1980年代のアグネス論争を中心に-

崔鎔佑

女性主義の理論化作業において、文化人類学者により‘公私概念’が導入されたが、1980年代からは女性同士における相違点に着目しつつ、この公私領域の曖昧性が強調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の公私概念は相対的な概念であるため、西洋におけるものをそのまま受け入れられないことは勿論のこと、同じ儒教文化でも国によって独自の意味を含んでいる。‘公私’という言葉は、韓国、中国、日本において同一の漢字が使われてはいるが、それぞれ意味が微妙に異なる概念なのである。例えば、日本では主に‘私’が‘公’に従属しており、‘私’という言葉は重層的かつ矛盾関係にある3つの意味を含んでいる。本稿では日本固有の公私概念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日本の社会構造を理解し、その社会における日本女性の位置付けと課題を確認することとする。特に、日本では1950年代から6度にわたって女性の間で主婦論争が起ったが、第4次主婦論争である“アグネス論争(1987年)”によって、公的領域と私的領域における女性の二重負担に世間の関心が集まるようになった。したがって、本稿では“アグネス論争”を中心に職場という公的な場における‘私’としての日本女性の立場を確かめてみることにする。

 Public and Private Concepts and the Position of Women in Japan
 -Focusing on the Agnes debate in the 1980s-

Choi, Yong-Woo

Since the 1980s, varying concepts of public and private have been introduced by cultural anthropologists into the theoretical work of feminism, emphasizing the ambiguity of public and private arenas, and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women. However, the concepts of public and private are so relative that Western notions of these concepts are not readily accepted in Asia, even for cultures that share a Confucian heritage, the meanings of these terms are unique for each country. The words “public” and “private” use the same Chinese characters in Korea, China, and Japan, but are understood slightly differently. In Japan, ‘私’(private) has been subordinated to ‘公’(public), and the word ‘私’ has three multi-layered and contradictory meanings. In this article, we explain Japan’s social structure by clarifying its unique concepts of private and public, and we examine the social position and problems of Japanese women in this context. In Japan, women have engaged in six major woman’s debates since the 1950s, but the Agnes debate(1987) brought public attention to the double burden of women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focus on the Agnes debate and examine the private aspects of Japanese women in the official arena of the workplace.